

내년 2월까지 광주·전남 3521가구 입주

국토부 발표... 전국 아파트 6만7452가구 입주 예정

광주 운남동 등 1376가구, 전남 혁신도시 등 2145가구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 사이 광주·전남지역 3521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아파트 6만7452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19일 국토교통부의 '2015년 12월~2016년 2월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현황'에 따르면 12월에 3만2146가구, 1월에 1만7263가구, 2월에는 1만8043가구가 입주한다. 지역별로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2만2306가구, 수도권 외 지역에 4만5146가구가 입주한다.

수도권에서는 12월에 하남미사 2742가구 화성동탄2 2819가구 등 1만1120가구가 집주인을 새로 맞이하고 1월에 워례신도시 9722가구, 화성동탄2 904가구 등 3113가구가 집주인을 한다.

또 2월에는 안산고당 1569가구, 안성대덕 2320가구 등 8073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12월 광주에서는 광산구 송정동 현대 디에코 1차(도시형) 43가구, 광산구 운남동 우방아이유엘 515가구, 전남에서는 영광군 녹사리 신구프라임 힐스 46가구, 나주

시 금천면 광주전남혁신도시 B3 사상으로 부영 708가구 등 총 1312가구가 새 집으로 이사한다.

내년 1월 광주에서는 서구 마북동 상무 SK VIEW 423가구가, 2월에는 광주 광산구 소촌동 지오스테이션 10년 임대 86가구, 북구 중흥동 영무예다음 309가구, 전남에서는 목포대성 A1 10년 임대 540가구, 목포대성 A1 공공분양 851가구 등 총 1786가구가 집주인에 나설 예정이다.

입주할 아파트 규모로는 전국적으로 60㎡ 이하가 2만6012가구, 60~85㎡가 3만5636가구, 85㎡ 초과가 5804가구로 85㎡ 이하 중소형 주택이 전체의 91.4%를 차지했다.

공급주택별로는 민간이 4만9498가구, 공공이 1만7954가구를 공급한다.

한편 아파트 입주단지에 대한 세부정보는 전월세 지원센터 홈페이지(jeonse.lh.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